

8

중고교 과정 교과서의 동성애자 차별적 실태 보고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1990년 겨울 미국의 보건 사회복지부에서는 미국 국내 전체의 연간 청소년 자살률의 30% 가량이 동성애자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이 개방되어 있고 또 동성애자의 동등한 권리가 대통령의 선거유세에 까지 부각되어 있는 미국에서마저 이러한 놀랄만한 숫자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을 자학하고, 또 그로인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청소년들이 현재 얼마나 깊은 심리적 갈등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각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소속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청소년기에 자살의 위기를 어렵사리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청소년들이 동성애경향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나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전문적 상담원들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어이없게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경향에 대해 어렵듯이나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에는 그들이 성적변태나 정신병자라는 비난의 문귀만이 썩여져 있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행하는 중학교 교과서 <성과 행복>에는 “동성애 등을 성적문제행동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발행, <성과행복> 83쪽) 라며 “동성간의 성관계와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는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AIDS와 같은 무서운 병의 전염경로가 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발행, <성과행복> 85쪽)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고등학교 <교련> 교과서에도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AIDS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교육부 발행, <교련> 268쪽) 라고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3년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더 이상 정신이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세계 심리학회와 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의학통계편람에서 영구삭제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신이상 취급하던 종래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를 외쳐대는 한국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몰아세우는 허무맹랑한 문구들을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마치 과학적 사실인양 버젓이 실고 있습니다.

단어: 23개 전체 → 5개 8~12% 정도. 22개는 8~9% 정도.
 대학 4개. 나라 4개. 기타 4개.
 동성애 3개 이상.
 965-6545번.

또한 AIDS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고 AIDS가 동성애자들 때문에 전염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세계 AIDS 연구가들 및 보건기구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시정되어 왔으며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AIDS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는 달리,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질병이 아닌 우리모두의 질병"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가들은 아직도 잘못된 보건정보를 교과서에 기록하여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AIDS의 예방이라는 국민보건 자체 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입니다. AIDS의 퇴치를 위해서는 이 질병이 성별이나 인종, 성적정체성을 가리지 않는, 단지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 그러나 능동적인 '안전한 성행위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 질병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이라면 이러한 문구들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한 그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사춘기 시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성적 변태이거나 성도착증환자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AIDS의 주범이라는 따위의 말들은 너무나도 깊은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같은 동성애자청소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상담하는 몇몇 상담기관에서조차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숨막히도록 갑갑하고 괴로운 동성애자 차별적 교육현실은 동성애자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 한자리에 모인 동성애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청소년기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신을 하나의 성인인 인격체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맑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할 청소년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외로움에 떨며 긴 고통을 홀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과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절망감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희생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하여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후세들이 맑은 청소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동성애자의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세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편견으로 말라죽게하는 동성애자 차별적 교과서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THE END